

도, 생명공학기업 바이오니아와 협약

바이오 육성사업 발굴·연구개발에 공동 협력 추진 김 지사, “산업육성·글로벌기업 성장 시너지 발휘”

전북자치도가 유전자 기반 바이오 벤처 1호 기업인 바이오니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주)바이오니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과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바이오니아 박한오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1992년 설립된 ‘바이오 벤처 1호’ 기업으로 30여 년간 600개 이상 원천 특허기술을 개발했으며, 생명과학·분자진단·신약개발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추진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국내·외 주요 바이오기업 기술 동향 공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가 가진 바이오 기반과 기업의 기술력을 융합하는 등 바이오 산업 집약화는 물론, 바이오 산업 전반에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는 물론 생명공학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유전자 기반의 첨단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니아와의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유전자 관련 바이오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내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관련분야 혁신연구기관들이 집적돼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할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박한오 (주)바이오니아 회장,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제9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출범

청년정책포럼단 확대 운영 통해 정책발굴 활성화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청년들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9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이하 포럼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도내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청년협의체로서, 2016년 1기부터 현재 9기까지 지역 청년과의 소통, 청년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9기 포럼단은 전북청년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 3월 6일 76명이 선발됐으며, 활동일기는 1년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15일 포럼단을 대상으로 활동의지 고취, 유대감 강화 등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포럼단원의 투표를 통해 김용연(익산) 대표와 정의수(고창) 부대표, 소화(전주, 여) 부대표가 선출됐다. 이들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제안은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구체화 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포럼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참여예산, 정책의 이해 등 역량강화 교육, 분과별 정책발굴 워크숍, 최종 정책발굴 워크숍, 우수정책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포럼단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특사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

오늘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 단속을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 등 80여 개소로 분철 방문객이 많은 곳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이 있을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구매 편의성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의사와 약

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대량 구매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1개 포장단위 판매(1개씩 분할결제 금지)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변질·변패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가격 표시(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 불일치 금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판매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제작하여 14개 시·군을 통해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100세 시대 건강이 제일”

국민건강의식 높아져 보건·건강증진 사업 중요도 확대 전북자치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으로 부응 노력

국민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건강증진 노력에 힘쓰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보건의 날(7일)을 맞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기대수명 증가로 질병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한 보건 인프라 확충과 건강증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일상속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형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금연클리닉, 비만예방, 구강보건, 정기 건강(암) 검진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도민 건강지표를 비교한 결과 전북자치도가 꾸준히 실현해온 이같은 노력이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율의 경우, 2010년에 23.1%(표준화율)였다면 지난해에는 20.8%로 떨어졌고, 반면 걷기 실천율은 2010년 42.8%에서 2023년 47.5%로 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지역 고령층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보통신(AI·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등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 고혈압, 당뇨병 등록 보건사업 등 생활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고려한 단계별 건강지원사책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인프라 확충,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보건소 대응역량 강화 등도 촘촘히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이 커지고 있어 도민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능강화 등 24시간 도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00세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와 시군의 보건·건강 증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정책에 대한 개발 추진으로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도민 건강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나서

전북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산업현장에 투입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양성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재직자 300명, 취업자 25명, 전문가 25명으로 총 350명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직자 과정은 재직자, 태양광산업 경력소유자를 대상으로 1주 과정이며, 교육내용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이다.

취업자 및 전문가 과정은 취업·산업전환희망자,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인력을 대상으로 각각 4주, 8주 과정이며, 교육내용은 태양광 산업 밸류체

인 소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전문 유지보수 기술, 설계·제작·시공·감리, 취업컨설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는 신재생에너지분야 재직자, 경력자, 취업 희망자 및 예정자 등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과정당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지난해 교육장비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http://saemangum-job.or.kr>) 및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063-464-4088, 465-70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